

서울 주요 대학 수능 비중 커졌다

16곳, 수능 37.6%로 8.6% 확대...학종은 35.8%로 줄어

지금까지는 서울 주요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컸다. 하지만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수능전형이 학종보다 비중이 커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2022학년도 대입 학종 비중은 35.8%(1만8343명)로 전년 대비 9.8%포인트 축소된다. 반면 수능전형은 같은 기간 29%(1만4787명)에서 37.6%(1만9296명)로 8.6%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종 선발인원이 4916명 줄 때 수능 선발은 4509명 늘어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심화되자 학종·논술 비중

이 큰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6개 대학에 수능전형 비중을 높이고도록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는 권고 형식을 취했지만 연간 700억 원에 달하는 고교교육 기여 대학 사업의 신청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들 대학은 대입에서 수능전형 비중을 높였다.

올해 고3 학생부부터는 학생부 기재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이 통합됐으며 진로희망사항이 삭제된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학종 서류 블라인드 평가는 올해 대입에도 이어진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대학에선

지원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해지면서 서류를 통해 증명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할 개연성이 크다"며 "교과성적보다는 세부능력·특기사항을 중심으로 학년 간 연계성·구체성을 종합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신설한 대학은 늘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전형을 비롯해 연세대 활동우수형·국제형(국제고), 경북대 일반전형 등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신설했다. 경북대·경상국립대·계명대도 의학계열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학종 수능실적은 학기 당 1개만 제출할 수 있다. 다수의 수능실적을 가진 수험생들은 제출서류 선택 역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연철 소장은 "본인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수능성적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수능 실적의 영향력은 예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에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민족시인의 숨결 오롯이

‘문병란의 집’ 정식 개관...광주 동구 지산동 자택 리모델링

민족시인 故 문병란 선생의 자택이 새단장을 마치고 개관했다.

12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시인 문병란의 집'〈사진〉이 한 달여 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지난 10일 개관식을 열고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문병란 선생의 유가족을 비롯해 임택 동구청장, 이병훈 국회의원, 김이수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 황일봉 서은문화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문 선생의 시 '직녀에게'에 곡을 붙여 노래한 가수 김원중 씨의 축하 무대도 펼쳐졌다.

'시인 문병란의 집'은 1980년부터 문병란 선생이 거주했던 지산동 자택을 동구가 매입 재단장한 것으로 2개 층으로 구성돼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1층은 문병란 선생의 연혁, 작품 등이 전시돼 있고 생전에 문병란 선생이 방으로 쓰던 공간을 '시인의 방'으로 재현했다. 2층은 문병란 선생이 쓰던 서재와 함께 시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영상실, 체험실 등으로 꾸며졌다.

'시인 문병란의 집'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인문산책길 중 하나인 지산동 일대 '뜻 세움길'에 '시인 문병란의 집'이 개관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시인의 수많은 작품과 그분의 생애를 기릴 수 있는 '시인 문병란의 집'을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코로나 막아라 12일 오전 광주송정역에서 KTX 방역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객차내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증강현실 체험 게임 '비엔날레 런닝맨' 운영

광주 북구, 디자인비엔날레 기간

광주시 북구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 AI 기술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내놨다.

12일 북구에 따르면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 동안 비엔날레전시관과 중외공원 일원에서

임형 증강현실 프로그램인 '비엔날레 런닝맨'을 운영한다.

이 증강현실 게임은 북구 '맛있는 예술여행센터'가 디자인비엔날레 홍보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게임 참여자는 증강현실(AR)이 구현되는 활과 스마트폰을 사용해 미술품을 훑어보는 재미도

짜우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무를 완수 후 게임이 종료되면 체험 인증서와 마패를 지급받는다. 비엔날레전시관 광장에 있는 체험 부스를 방문하면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비용은 1000원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스마트 관광프로그램인 비엔날레 런닝맨이 디자인비엔날레 관람과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여행에 특별한 재미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여행 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선정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 1단계 연구 수행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는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이주와 건강공공성: 지역건강커먼즈를 중심으로'라는 연구 주제로,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1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돼, 향후 3년 동안 1단계 연구를 수행한다.

이 연구소는 앞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나타난 이주민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갈등과 모순을 건강공공성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론적

실천적 연구에 나선다. 특히 연구소는 이주민의 건강공공성 실현을 위해 지역밀착형 건강커먼즈 모델을 개발해 대학, 지자체, NGO 등과 함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학 소장은 "이주민의 건강문제는 단순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해결되기보다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주민 건강공공성 담론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남구 추석맞이 주민생활안정대책 추진

코로나 방역·돌봄 지원 등

광주시 남구는 추석맞이 지역민들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남구는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등 43곳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식당·홀더뷰 등 중점 관리시설을 비롯한 PC방과 오락실, 실내 체육시설 등 일반 관리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하

고 했다.

아울러 주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봄이웃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위문금과 물품을 지원하고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원과 도시락 배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구는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관공급사 공사대금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으며, 대형 공사 현장 등을 방문해 임금 체불방지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창립 44주년 기념

예금 특판

- MG 뛰어라정기적금 1년 **4.0%** (조건부)
- MG NEW 정기적금 1년 **2.6%** (조건부)
- MG 더뱅킹 정기예금 1년 **2.1%**

우대조건

1. MG스마트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1회 이상 로그인
2. 만기자동이체 등록
3. MG더뱅킹을 이용한 이체거래 실적 6회 이상

대출 상담 환영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정책자금(햇살론)
임대보증금(전세자금)대출

상담 환영

※한도소진시 조기종료 되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민생 애드밴스

건설공제조합
월산사거리

대성사거리

광주시 남구 독립로 161 (월산동)
Tel. (062) 366-8111

돌고개역 지점

KT서광주지사
무등사에 연구원

농성
빛어울림 아파트

광주시 남구 월산로151번길 2 (월산동) <돌고개역 2번출구>
Tel. (062) 366-8112